

醫療政策의 最適理論 : 論評

梁 奉 玖*

『經濟學研究』第 32 集에 실린 林陽澤先生任의 論文은 理論不在의 醫療서비스 政策 部門에 획기적인 指標로서의 값어치를 가질 뿐 아니라 그 理論的 깊이는 讀者로 하여금 어떤 충동을 느끼게 할 程度였다. 特히 뿌리가 얇고 歷史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 保健醫療政策이 많은 課題를 안고 있는 즈음에 理論的으로 어떤 狀態가 最適(optimum)인가를 보여 줌으로써, 實際 政策決定에 곧바로 適用된다는 意味에서 라기 보다는 政策이 追求해 나가야 할 方向을 提示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 價値를 附與할 수 있겠으며 論文準備過程에 있어서도 많은 努力과 時間이 所要되었음을 다루어진 여러 論題에서 엿볼 수 있었다.

最適統制理論(optimal control theory)을 分析의 基礎로 삼고서 目的函數(objective function)와 選擇變數(choice variables)를 使用하여 導出된 最適條件들은 그 展開過程에서는 別다른 理論上的 問題點은 없는것 같다. 다만 提示된 여러 函數들 중에서 筆者가 見解를 달리하는 部分이 몇 있어 本稿에서 이들에 對한 擬問을 提起해 보고자 한다. 우선 醫療서비스의 最適 受惠對象者數와 最適 資源投入量을 導出した第二章에서 目的函數 V 가 設定되었는데, 社會全體의 經濟價値로 定義되는 函數에 健康한 사람을 產出하기 위하여 醫療서비스部門에 投入된 資源에 해당되는 $(S_2 \cdot R)$ 이 包含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醫療서비스를 받고 있는 患者가 生産過程에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經濟的 價値가 없기때문에 $(S_1 \cdot I)$ 가 目的函數에서 除外되었음은 쉽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S_2 \cdot R)$ 이 目的函數에서 除外됨은 醫療서비스에 投入된 資源의 經濟價値가 제로임을 意味하며, 本文中에 設定된 $0 < S_2 < 1$ 의 條件을 考慮할 때 $(S_2 \cdot R)$ 이 零이 되는것은 全體資源인 R 이 零일 때에만 可能하므로 이는 또한 目的函數 V 중에서 $[\rho(1-S_2)R]$ 의 存在까지를 否定하는 根據가 될 수 있다. 만약

* 서울大學校 保健大學院.

$(S_2 \cdot R)$ 이 目的函數에 包含될 경우 그 資源의 單位當 收益率을 ρ 로 하든 하지 않든 間에 患者의 最適數 $(S_1^* \cdot I)$ 와 資源의 最適量 $(S_2^* \cdot R)$ 은 本文中의 式 (24)나 (25)와는 相異할 것이며 그들을 通하여 導出되는 一般的 意味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醫療保險 加入者의 最適條件을 論한 第三章에서는 個人의 效用函數인 式 (25)와 制約函數(constraint)인 式 (37)이 紹介되었는데 그중 個人의 醫療費負擔函數 $g_i = g(m_i)$ 와 그 一次微分인 總醫療費 負擔水準이 유발시키는 個人負擔의 限界費用 $g'(m_i)$ 에 關한 式 (37)의 妥當性은 論해 보고자 한다. 本文에서 m_i 는 總醫療支出水準이라 定義되어 있는데 全體 文脈으로 보아 個人負擔 醫療費支出과 組合負擔, 支出 醫療費를 合한 醫療費支出總額이 될 것이며 g_i 또한 醫療狀況 i 가 發生할 境遇 個人負擔 醫療費支出額을 나타내므로 g_i 와 m_i 의 關係는 다음과 같은 單純 一次線型 函數로 나타낼 수 있다.

$$g_i = g(m_i) = m_i - k_i$$

여기서

k_i : 醫療의 狀況 i 가 發生하였을 境遇, 組合이 補助할 醫療支出費 따라서 m_i 가 유발시키는 個人負擔의 限界費用은 1 이되며 즉 $g'(m_i) \equiv [dg(m_i)/dm_i] = 1$, 醫療保險加入者의 效用極大化를 위한 必要條件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partial U_i / \partial m_i = \partial U_i / \partial [R_0 - C - g(m_i)]$$

이것을 풀이 하자면 險醫療保 加入者는 醫療의 狀況 i 에 對한 總醫療支出額(m_i)의 限界效用과 그의 純資產 $[R_0 - C - g(m_i)]$ 의 限界效用이 一致할때 그의 總效用을 極大化 시킬수 있는 것이다.

上記된 必要條件이 本文中의 式 (40)과 類似하면서도 相異한 形態를 取함은 本文에서는 g_i 가 m_i 의 增加函數라고 假定한 때문이며, g_i 와 m_i 의 分명한 關係를 알고 있는 以上 本稿에서와 같이 單純線型函數로 나타내는 것이 오히려 妥當하지 않느냐고 反問해 본다.

마지막으로, 醫療保險의 最適政策을 論한 第四章에서는 대체로 세가지를 指適하고 싶다. 첫째로 註20)에서 醫療保險組合의 公共財(public good)의 性格에 關한 言及이 있었는데, 本 論評의 筆者는 醫療서비스가 優良財(merit good)로 定義되는게 合當되지 않느냐는 質問을 하고 싶다. 公共財의 두 特性, nonrival in consumption과 nonexclusion이 醫療서비스에 그대로 適用되기는 어려운 것 같으며 따라서 學校教育(education)과 같이 國民 누구나가 最少限의 惠澤을 누려야 하는 性質의 優良財로 간주되어져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둘째로, 最適政策을 論함에 있어 最適條件, 式 (46)의 成立 與否를 2 가지 境遇로

나누었는데 그중 첫번째에서는 m_i 가 同一하다고 假定을 세웠다. 모든 經濟모델이 假定의 根據위에서 分析可能한만큼 웬만큼의 假定은 오히려 必要不可缺한 것이 常例이나 各 醫療的 狀況 i 에 對하여 總醫療費負擔額 m_i 가 同一하다는 本文中の 假定은 現實의 어떤 保險判決下에서도 正當化되기가 어려운것 같으며 따라서 式(51)에 表記된 條件도 그 意味를 附與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세째로, 本文中の 式(42)에서 g_i 는 m_i 의 一次函數라고 假定되어 있는데, 即 $g = g(m_i) = a + bm_i$, 그렇다면 組合負擔分支出(常數 a 로 나타남.)이 相異한 醫療的 狀況에도 恒常 一定함을 意味하며 이것은 論理上 無理가 있는 函數選擇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式(42)를 出發點으로 하면서 最適政策에 關하여 論한 第四章은 그 論理의 妥當性에 疑問이 提起될 수 있겠으며 適切한 修正이 要求된다고 보아진다.

上記 거론된 여러 問題點의 基本은 本 論評의 筆者가 m_i 나 g_i 를 比率로 본것이 아니고 絶對額으로 풀이하는데 있으며 本文의 全體文脈이나 式(41)에서 原著者도 그렇게 풀이 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原著者는 m_i 나 g_i 를 費用의 '水準'으로 表記함으로써 分析이 展開되었는 바, 水準이 무엇을 意味하는지에 對한 確實한 解明이 必要하리라 본다.

비록 筆者가 몇가지 疑問點에 對하여 論評을 하였지만, 林先生任이 最適理論을 通하여 이룬 學問的 業積은 높이 評價해드리고 싶으며 學問의 發展을 念願하는 經濟學徒로서 이런 類의 論文이 끊이지 않고 發表되기를 祈願할 따름이다.

參 考 文 獻

林陽澤, 醫療政策의 最適理論, 『經濟學研究』, 第32集, 1984年 12月.